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Music Biz Weekly Brief

음악산업 주간브리프

제6호

2009.1.16 ~ 2009.1.22

I . Analysis Overview 1

II . 국내 동향 4

1. 산업정책 및 제도 4
2. 음악업계 동향 5
3. 소비자동향 8
4. 언론동향 14
5. 행사 및 협회 소식 외 16

III . 해외 동향 18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8
2. 한류관련 음악사업 동향 22

I. Analysis Overview

I. Analysis Overview 1

II. 국 내 동 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김평수 연구원] 4

1-1. 콘진원,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 발표 4
 올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은 법·제도 강화 및 원소스멀티유스(OSMU) 확산, 방통융합에 따른 융합콘텐츠 활성화, 민간 및 해외투자 유치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1-2. 통합 콘텐츠진흥원 발전방향 세미나, 다양한 의견 나와 4
 이인화 교수, 매체융합형의 고급 기획·창작 인력을 육성 강조. 김재하 서울예대 교수는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산업분야별 지원에서 성장단계별 통합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2. 음악업계 동향 [김훈 연구원] 5

2-1. 다날, 오디오닷컴 회원수 150만 돌파 5
 ㈜다날이 서비스 중인 음악전문사이트 오디오닷컴(www.ohdio.com)의 회원수가 150만 명을 돌파

2-2. KTF뮤직, 음악포털 '도시락' 인수 결정 6
 KTF뮤직, 지난 20일, 포괄적 음악사업자로 진출하기 위한 성장 동력의 마련을 위해 모기업인 KTF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 즉, 유무선 음악 포털사이트 '도시락(www.dosirak.com)'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 양수가액은 51억 7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발표.

2-3. KTH 개발 '뮤직오로라' 애플 앱스토어시장에서 인기 7
 KTH가 자체 개발한 음악추천 서비스 '뮤직오로라'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 등록된 지 일주일 만에 1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

2-4. "원더걸스" 유튜브에 개인 채널 개설 7
 원더걸스는 유튜브에 원더걸스(www.youtube.co.kr/wondergirls)라는 개인채널을 개설, 자신들의 관련 영상 제공

2-5. 기타 단신 등 8
 - 2년 만에 디지털 싱글 '떠나지마...'로 컴백한 t윤미래 음악차트 1위
 - 가수 박효신, 팬텀엔터테인먼트에 음반유통계약 위반 소송에서 승소
 - SS501, 개별 활동 모두에서 좋은 성과! 음반, 드라마, 공연 멀티히트

3. 소비자 동향 [서상아 연구원] 8

3-1. 음반 판매량의 하락세 속에서 신보 음반의 활약 두드러져 8
 소녀시대의 미니앨범 1집이 지난주 판매량의 3분의 1 가량 하락하면서 전체 판매량이 큰 타격을 입는 모습이었지만 다양한 신보 음반의 판매와 빅뱅, 동방신기 등 스테디셀러 음반의 저력으로 상위권 음반 판매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3-2. 소녀시대 <Gee> 전 차트 석권 12
 소녀시대의 <Gee>가 전 차트를 석권하면서 새로운 음원여왕으로 자리 매김하는 한 주였다. 또한 방송계의 핫이슈였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인기가 음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오디오형 가수들의 조출한 신보 진입이 이뤄지는 한 주였다.

4. 언론 동향 [박진석 연구원]..... 14

4-1. '꽃보다 남자'의 인기 음악차트에 까지 14
 MBC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시청률이 지난 19일자 조사에서 25%에 육박한 가운데, 드라마 삽입곡도 각종 음악차트에서 상승세.

4-2. 국제음악산업연맹(IFPI) Digital Music Report 2009 출간..... 15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은 조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세계 디지털음악 시장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 실물 음반에서 디지털음반으로의 변화는 대세라는 것을 인정.

4-3. 주요 단신 15
 -동방신기, '5연속'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1위
 -엠넷미디어, LGT와 음악 서비스 파트너 계약
 -소녀시대-꽃남O.S.T '우리가 바로 2009 대세!'

5. 행사 및 협회 소식 [장정희 연구원] 16

5-1. 벅스, 대학생 음악전문 기자단 모집 16
 음악포털사이트 벅스(bugs.co.kr)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음악전문 기자단 모집

5-2.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 업무 시행 공고 16
 200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음악저작물 이용촉진계약」업무를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 업무로 변경 시행

Ⅲ. 해 외 동 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고민정, 장정희]..... 18

1-1. YouTube의 UCC 음악 소리차단, 이용자들 분노 18
 워너뮤직 그룹의 음악을 담고 있는 비디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는 워

너뮤직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 UCC 비디오의 소리차단 조치로 이용자들이 음반업계에 보이콧을 벌이는 등 갈등심화.

1-2. 음악 산업의 새로운 시장 - 휴대폰 관련 시장 확대..... 18

- 휴대폰 시장도 무료 음원에 대해 기대
- Microsoft, 모바일 음악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

1-3. 맨섬의 ISP가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를 제공한다..... 19

맨섬 정부 섬 거주자들이 ISP에게 한번 요금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음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

1-4. 프랑스 칸에서 Midem음악 박람회 개최 20

- 불법 음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 이제는 인정할 시기
- 박진영, MIDEM 기초연설 성공적으로 마쳐

1-5. 주요단신 21

- Apple App Store 다운로드 5억 건 기록
- Sony Music Entertainment, Universal Music과 협정 체결
- 대부분의 온라인 음원이 불법이라고 밝혀져

2. 한류관련 음악산업현황 [고민정, 김평수]..... 22

2-1. '한류스타' 뮤지컬 진출활동 활발 22

SS501, 신혜성, 강타 등 한류 스타들의 뮤지컬 무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한류 팬 꾸준히 증가.
기존에는 대부분 무언어극을 선호했지만 한류스타들의 영향으로 한국어 발성 뮤지컬에도 외국인 관람객의 관심 높아져.

2-2. 아시아송 페스티벌, 세계 각국서 방영 23

아시아송 페스티벌 매년 아시아 15개국의 TV채널을 통해 녹화 방영. 제5회 행사의 녹화 장면은 아시아를 넘어 북미, 북유럽,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도 소개.

2-3. 한국가수들 도쿄에서 '케이팝 슈퍼라이브' 개최 24

전진, 슈퍼주니어, sg워너비, 테이, 휘성 신혜성 등 가수 6팀은 31일 일본 도쿄 국제포럼 A홀에서 합동 공연 <케이팝 슈퍼 라이브> 개최 예정.

Ⅱ. 국내 동향

1. 산업정책 및 제도

1-1.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 발표

올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은 법·제도 강화 및 원소스멀티유스(OSMU) 확산, 방통융합에 따른 융합콘텐츠 활성화, 민간 및 해외투자 유치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19일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문화콘텐츠산업은 신한류 전개 및 1인 창조기업의 확산, 녹색성장 및 방통융합에 따른 수요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콘진원은 특히 2009년을 관통할 10대 문화산업 키워드로 △신한류 전개 및 수출 다변화 △실속형 소비문화 정착 △1인 창조기업 부상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 확충 △OSMU 킬러 콘텐츠 성공모델 창출 △결합서비스 본격화 △그린 콘텐츠 대두 △문화산업의 국경 없는 무한 경쟁 △법제도 기반 강화 등을 꼽았다.

콘진원이 발표한 10대 문화산업 키워드는 올해 정부가 초점을 맞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인 셈이다.

콘진원은 미국·유럽·남미 등지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글로벌콘텐츠센터 및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신한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올해 19억달러 규모의 문화콘텐츠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을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 유치, OSMU 킬러콘텐츠의 성공모델 창출 등도 올해 주력할 사업내용이라고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문화콘텐츠산업 10대 전망'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20일부터 홈페이지(www.wecon.kr) 정책라운지 코너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관련기사]

콘진원 "신한류와 융합콘텐츠 활성화 주력". 전자신문. 2009-01-19
 "문화콘텐츠산업 지속 성장...올수출 19억弗 예상" 한국경제, 2009-01-19
 "경기침체...그래도 문화콘텐츠산업은 성장, 뉴시스. 2009-01-19

1-2. 통합 콘텐츠진흥원 발전방향 세미나, 다양한 의견 나와

16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현황 및 통합 콘텐츠진흥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류철균(필명 이인화, 소설가)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문화산업이 부가

가치가 낮은 아웃소싱 구조의 제작기반 중심에서 창작기반 중심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게임, 영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인력규모는 2007년 현재 1만8천649명으로 3천714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더구나 국내 문화산업 노동시장이 단기 고용, 중복 취업 등으로 불안정한데다 초급 제작인력은 공급 과잉 상태지만 기획·창작 중심의 고급 전문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 주도의 문화콘텐츠산업 양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인력은 한국처럼 초급 실무인력 중심이 아니라 다국적, 다매체적 경험을 가진 창조적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통합콘텐츠진흥원의 인력은 '산업인력 양성 교육'에서 '고귀한 장인 정신의 재생 교육'으로 발상을 전환해 고급 창조자를 양성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서 김재하 서울예대 교수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산업분야별 지원에서 성장단계별 통합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할 과제로 ▲창의적 인재양성 ▲융합형 신시장 진출 ▲유통 구조 선진화 ▲해외진출지원 강화 ▲건전한 콘텐츠 이용문화정착 등을 제시했다.

김승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국내 드라마의 80%를 제작하는 독립드라마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과의 저작권 배분 갈등, 제작비 급상승, 광고 급감 등으로 대부분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우량 대형 외주제작사 육성을 위한 드라마 전용기금 1천억원 조성, 아시아에서 드라마 제작의 허브 역할을 할 드라마진흥본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관용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게임분야의 특성을 살리려면 통합콘텐츠진흥원이 기능적 통합을 통한 장르별 평균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에 따라 오는 4월 출범할 예정인 통합 콘텐츠진흥원의 비전수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관련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2월과 3월에 두 차례 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2. 음악업계 동향

2-1. 다날, 오디오닷컴 회원수 150만 돌파

㈜다날(대표 박성찬)은 자사가 서비스 중인 음악전문사이트 오디오닷컴(www.ohdio.com)의 회원수가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50만 회원 돌파로 오디오닷컴은 도시락,

멜론, 벅스, 엠넷 등과 함께 대표 음악전문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오디오닷컴은 다날이 지난 2004년 7월 서비스를 개시한 음악전문포털로, 발라드, 댄스, R&B, 힙합/랩, 락, 메탈, 재즈, 클래식, 컨트리, 블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총 50여 만 곡을 고객들에게 서비스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오디오닷컴에서 해당 음악파일의 실시간 감상과 다운로드는 물론, 휴대폰의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을 바꿀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회원들에게 매월 300건의 무료문자를 제공하고 있다.

다날 뮤직사업실 전이배 실장은 "회원수 150만은 음악전문사이트의 소형과 중대형을 나누는 하나의 지표"라며 "150만 회원 돌파로 인해 이제 오디오닷컴도 당당히 중대형 음악전문사이트의 반열에 합류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오디오닷컴, 회원 150만 명 돌파 [오디오닷컴 보도자료 2009.01.22]

오디오닷컴, 회원 150만 명 돌파 [아이뉴스24 2009.01.22 외]

2-2. KTF뮤직, 음악포털 '도시락' 인수 결정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KTF뮤직은 지난 20일, 포괄적 음악사업자로 진출하기 위한 성장 동력의 마련을 위해 모기업인 KTF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 즉, 유무선 음악 포털사이트 '도시락 (www.dosirak.com)'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으며 양수가액은 51억 7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밝혔다.

2005년 개설된 음악포털 '도시락'은 현재 7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순위조사 기관 랭키닷컴(1월13일자 기준) 집계결과 방문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악시장의 큰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양수 계약 체결은 온라인 음악 산업의 동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으로부터 음악포털 '멜론'사업을 양수한 데 이은 통신업계 음악사업 부문 계열화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경제 20일자 보도자료 참고)

한편, 이번 계약은 주식시장의 KT그룹 계열 주에게도 호재로 작용했다. 21일 주식시장에서 KT와 KTF는 전일보다 각각 5.79%와 3.61% 상승한 4만2000원, 3만100원에 장을 마감했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KT그룹 계열사인 KTF뮤직, KTH, 올리브나인 등도 동반 급등했다. 특히, KTF 자회사인 KTF뮤직은 KTF의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파이낸셜뉴스 20일자 보도자료 인용)

또한 시장 전문가들은 KTF의 행보와 그 전망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KTF뮤직이 KT의 IT기술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앞서 언급된 통신업계 음악사업 부문 계열화 작업은 수익성의 개선과 경쟁력 확보의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강대석 KTF뮤직 대표는 한국일보의 20자 보도를 통해 “음악포털 도시락을 중심으로 유무선 기반의 유비쿼터스 음악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며 “수익형 신규 음악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음악플랫폼의 유통력 강화로 디지털음악시장의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KT - KTF 합병효과 무섭네” [파이낸셜뉴스 2009-01-22]
- KTF뮤직, 음악포털 `도시락` 인수...상한가 [매일경제 2009-01-21]
- KTF뮤직, 유무선 음악포털 도시락 영업양수도 결정 [한국경제 2009-01-20]
- KTF뮤직, 음악서비스 '도시락' 인수 [연합뉴스 2009-01-20]

2-3. KTH 개발 '뮤직오로라' 애플 앱스토어시장에서 인기

KTH(대표 노태석)가 자체 개발한 음악추천 서비스 '뮤직오로라'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 등록된 지 일주일 만에 1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한국에서 등록된 애플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일 현재까지 1만 건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이는 한국판 어플리케이션 중 단기간 내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치다. 이 결과, 한국 앱스토어(App Store)의 뮤직 카테고리에서 7일 만에 1위를 달성했다.

뮤직오로라는 개인이 PC에 보유하고 있는 음악 파일을 분석하여 음악성향을 알려주고 '필링크'라는 기능으로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쉽게 찾아 음악 플레이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음악 추천 서비스이다. 특히 뮤직오로라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한 이미지 검색 UI(Searching GUI Solution) 방식이 이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KTH 디지털컨텐츠사업본부 정용관 상무는 “뮤직오로라의 완성도는 아직 100%가 안 된다. 현재의 성과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고객의 마음과 통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고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2월 말쯤 업그레이드 된 유료 버전의 2번째 뮤직 오로라를 선보일 계획이며 애플 앱스토어라는 거대한 해외 마켓에서 한국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KTH, 음악추천서비스 '뮤직오로라' 1만 건 다운로드-뮤직카테고리 1위 [KTH보도자료 2009.01.20]
- KTH, 음악추천서비스 '뮤직오로라' 1만건 다운로드 [뉴시스 2009.01.20] 외

2-4. "원더걸스" 유튜브에 개인 채널 개설

인기그룹 원더걸스가 미국 동영상 커뮤니티인 '유튜브'에 개인 채널을 개설

원더걸스는 유튜브에 원더걸스(www.youtube.co.kr/wondergirls)라는 개인채널을 개설하였으며, 이 채널을 통하여 원더걸스의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음악프로그램 출연 영상, 연습 및

팬미팅 등 관련 영상을 올렸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할 예정이다.

또한 채널 개설 이벤트도 마련,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네티즌 대상 이벤트도 진행할 것이다. 원더걸스는 오는 2월 말 태국에서 콘서트를 시작으로 3월에는 미국 뉴욕과 LA에서 열리는 'JYP콘서트'와 한국에서의 '원더걸스 단독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기사]

원더걸스가 유튜브에 뒀다 [조선일보 2009.01.22]
원더걸스, 유튜브에 개인채널 개설 이뉴스투데이 [2009.01.22] 외

2-5. 기타 단신 등

○ **2년 만에 디지털 싱글 '떠나지마...'로 컴백한 t윤미래 음악차트 1위**

19일 t윤미래가 디지털 싱글 '떠나지마...'로 컴백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t윤미래의 이름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

[관련기사]

t윤미래, 컴백 동시 음악 차트 1위 [OSEN 2009.01.20]

○ **가수 박효신, 팬텀엔터테인먼트에 음반유통계약 위반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제23 민사부(부장판사 이준호)는 21일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가 박효신과 박효신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를 상대로 음반유통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박효신, '음반유통계약 위반' 9억 손해소서 승소 [마이데일리 2009.01.22]

○ **SS501, 개별 활동 모두에서 좋은 성과! 음반, 드라마, 공연 멀티히트**

[관련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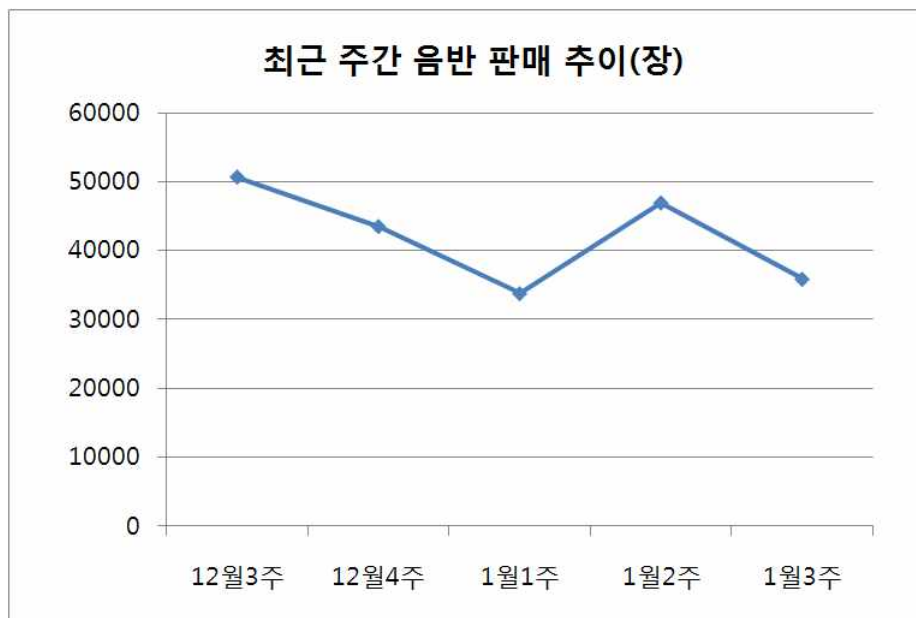
SS501, '각개전투' 모두 '승'...음반, 드라마, 공연 멀티히트 [아시아경제 2009.01.22]

3. 소비자 동향

3-1. 음반동향 : 음반 판매량의 하락세 속에서 신보 음반의 활약 두드러져

2009년 1월 3주(1월 15일 ~ 1월 21일)의 음반동향은 지난주 급격하게 올랐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따라서 4만6천 장을 넘었던 음반 판매량은 이번 주 1만 장 넘게 하락하였다.

이 같은 음반 판매량의 하락세는 소녀시대의 미니앨범이 판매 첫 주의 위력이 약해지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주 2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던 소녀시대의 미니앨범이 이번 주 8천 장 가량까지 하락하면서 전체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출처 : 주)한터정보, 편집 :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월 15일 - 21일)

하지만 여러 가수들이 신보 앨범을 출시하면서 10위권 내의 음반 판매량은 전주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바비킴, 린, 리쌍 음반의 경우 전주 출시가 된 앨범이긴 하지만 방송활동, 음원 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활동이 본격화되고 일주일 내내 판매량이 집계되면서 이들 음반의 판매량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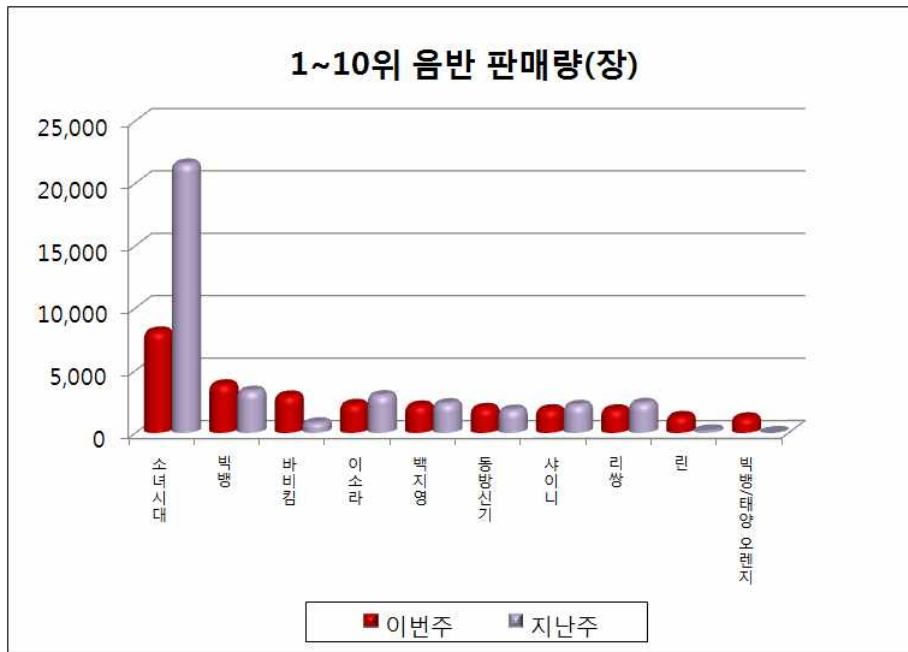
신보 음반의 판매량 상승 속에서 1월 3주 음반 차트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 음반이 아닌 빅뱅 콘서트의 실황을 담은 DVD음반의 차트 진입이다. 콘서트 DVD음반의 경우 보통 음반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일부 팬들을 상대로 소량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빅뱅의 경우 기존 음반과 더불어 DVD음반 또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된 이번 DVD음반은 모두 20위 권 내에 진입하였으며 이 세 음반의 판매고를 합칠 경우 2천8백여 장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황 속에서도 아이돌 가수의 활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소녀시대 미니앨범의 판매량 하락으로 전체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지만 1월 출시 음반이 5개를 넘어서며 2008년 출시 앨범 중심으로 짜여있던 음반차트가 확실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10위권 내의 음반들은 전주 보다 높은 판매고를 보였고 이에 모두 천 장 이하로 판매된 앨범은 찾아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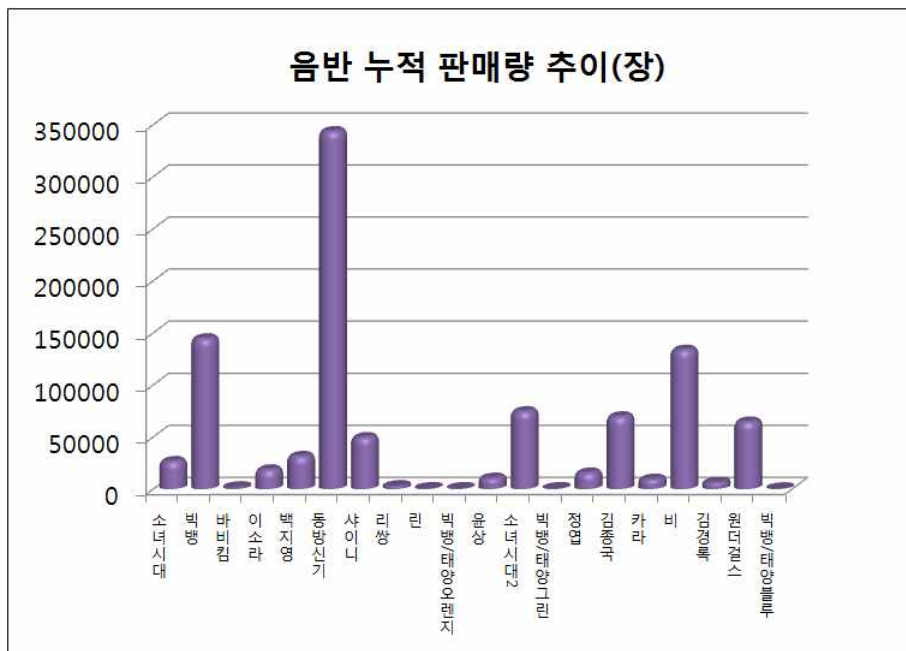
순위	변화량	아티스트 / 앨범명	음반사	장르	금주 판매량	전주 판매량	발매일
1	-	소녀시대 미니앨범 1집 / Gee	에스엠	가요	8,113	21,559	2009-01-07
2	-	빅뱅 2집 / Remember	엠넷	가요	3,874	3,361	2008-11-05
3	▲9	바비킴 / Special Album	도레미	가요	2,983	823	2009-01-12
4	▼1	이소라 7집 / 겨울, 외롭고 따뜻한 노래	엠넷	가요	2,308	3,010	2008-12-17
5	-	백지영 7집 / Sensibility	로엔	가요	2,173	2,362	2008-11-14
6	▲1	동방신기 4집 / Mirotic	에스엠	가요	1,984	1,849	2008-09-26
7	▼1	샤이니 1집 / The Shinee World(A버전)	에스엠	가요	1,876	2,227	2008-08-29
8	▼4	리쌍 5집 / 백아절현	엔티움	가요	1,869	2,389	2009-01-09
9	▲39	린 5집 / Let Go, Let In, It's A New Day	비타민	가요	1,336	200	2008-01-13
10	진입	빅뱅, 태양 / 2008 Global Warning Tour 콘서트(오렌지)	태원	가요	1,228	0	2009-01-15
11	▼1	윤상 / Song Book : Play With Him	예당	가요	958	850	2008-12-11
12	▼4	소녀시대 1집 / 소녀시대	에스엠	가요	951	1,147	2007-11-01
13	진입	빅뱅, 태양 / 2008 Global Warning Tour 콘서트(그린)	태원	가요	931	0	2009-01-15
14	▲8	정엽 1집 / Thinkin' Black On Me	엠넷	가요	850	546	2008-11-04
15	▲8	김종국 5집 / Here I Am	엠넷	가요	769	526	2008-10-22
16	▼1	카라 미니앨범 2집 / Pretty Girl	엠넷	가요	762	789	2008-12-04
17	▼3	비 5집 / Rainism	엠넷	가요	742	796	2008-10-15
18	▲9	김경록 1집 / People & People	소니	가요	735	465	2008-12-16
19	▼10	원더걸스 / The Wonder Years : Trilogy	로엔	가요	688	1039	2008-09-30
20	진입	빅뱅, 태양 / 2008 Global Warning Tour 콘서트(블루)	태원	가요	681	0	2009-01-15

출처 : 주)한터정보 (기간:1월 15일 - 21일)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면 소녀시대의 미니앨범 출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양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 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신보 음반이 많이 출시되었지만 폭발력 있는 판매 추이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아 기존의 누적 판매량에서 강세를 보였던 음반들이 여전히 차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1월15일 - 21일)



출처: 주)한터정보, 편집: 사)한국문화전략연구소 문화와경제 (기간: 발매일 - 1/17일)

1월 3주의 음반동향은 소녀시대 미니앨범의 판매량의 3분의 1 가량 하락한 것에 큰 영향을 받아 전체 판매량이 큰 타격을 입는 모습이였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신보 음반의 판매와 빅뱅, 동방신기 등 스테디셀러 음반의 저력으로 상위권 음반 판매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 1월 출시된 김동률의 신보 음반이 10만 판매의 고지를 달성하며 음반 판매의 붐을

일으켰듯이 2009년의 포문을 열 수 있는 좀 더 폭발력 있는 음반들의 출시가 무엇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3-2. 음원동향 : 소녀시대 <Gee> 전 차트 석권

1월 3주의 음원동향은 지난 주 급부상한 소녀시대의 <Gee>가 전 차트를 석권하면서 새로운 강자의 등극을 알렸다. 음원차트 진입 2주 만에 전 차트를 석권한 <Gee>는 음반 강세와 더불어 음원까지 쌍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주 음원차트에서는 소녀시대의 <Gee>를 시작으로 신보 음원들이 대거 순위권으로 진입하면서 차트 변동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신곡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반면, 지난 연말 강한 면모를 보였던 백지영의 <충 맞은 것처럼>, 린의 <매력쟁이> 등은 급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었다.

일반 가요 신곡의 강세와 함께 드라마 O. S. T의 진입과 강세도 이번 주 음원동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방영을 시작한 KBS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삽입된 곡들이 비교적 순위변동이 늦은 멜론을 제외하고 모든 사이트의 음원차트에 진입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SS501, 샤이니 등 인기 아이돌 그룹이 대거 참여한 <꽃보다 남자>의 삽입곡 <내 머리가 나빠>, <파라다이스> 등은 음원차트에 상주하던 기존 O. S. T 곡들과 함께 음원에서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멜론을 제외한 음원사이트 마다 3곡 이상씩 순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O. S. T에 대한 인기가 높아 향후 드라마의 해외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참가가수들의 한류 물이와 같은 또 다른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주의 경우 음반과 음원에서 동시에 출시된 신보가 많아 음반차트와 음원차트의 경향이 비슷한 면이 많았다. 하지만 신곡의 본격적인 차트 진입이 시작된 금주 음원차트는 음반 강자들의 동시 강세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소녀시대를 제외하고는 바비킴, 리쌍, 린 등의 신보가 음반차트 만큼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에 대거 신보를 출시한 가수들이 주로 라이브무대에 강한 오디오형 가수이기 때문에 음원보다는 음반 쪽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금주 음원차트는 소녀시대의 차트석권 속에서 방송계의 핫이슈였던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인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오디오형 가수들의 조출한 신보 진입이 이뤄지는 한 주였다. 이로서 지난 연말 정체기를 거쳐 지난주 과도기를 보였던 음원차트는 1월 3주에 새로운 분위기로 완벽한 변화를 이뤘다 할 수 있겠다.

순위	박스 1/8 ~ 1/14	엠넷 1/12 ~ 1/18	도시락 1/12 ~ 1/18	멜론 1/11 ~ 1/17
1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소녀시대 / Gee
2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케이윌 / 러브119
3	리쌍 / 챔피언	김경록 / 이젠 남이야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4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티맥스 / 파라다이스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5	빅뱅 / Strong Baby (승리 Solo)	빅뱅 / Stylish (The FILA)	동방신기 / 주문	카라 / Pretty Girl
6	김경록 / 이젠 남이야	SS501 / U R Man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김경록 / 이젠 남이야
7	빅뱅 / Stylish (The FILA)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썸데이 / 알고있나요	빅뱅 / 붉은노을
8	케이윌 / 러브119	케이윌 / 러브119	케이윌 / 러브119	SS501 / U R Man
9	티맥스 / 파라다이스	카라 / Pretty Girl	김경록 / 이젠 남이야	린 / 매력쟁이
10	SS501 / 내 머리가 나빠서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카라 / Pretty Girl	럼블피쉬 / 비와 당신
11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바비킴 / 사랑 그놈	브라운아이드걸스 / My Style
12	카라 / Pretty Girl	빅뱅 / 붉은노을	리쌍 / 챔피언	원더걸스 / Nobody
13	나몰라패밀리 / 내 사랑 로맨스	이은미 / 애인있어요	SS501 / U R Man	빅뱅 / Stylish (The FILA)
14	SS501 / U R Man	리쌍 / 챔피언	백지영 / 총맞은 것처럼	가비엔제이 / 연애소설
15	이승철 / 듣고 있나요	티맥스 / 파라다이스	린 / 사랑 다 거짓말	빅뱅 / Wonderful
16	럼블피쉬 / 비와 당신	바비킴 / 사랑 그놈	김범수 /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김종국 / 어제보다 오늘 더
17	노라조 / 슈퍼맨	린 / 사랑 다 거짓말	빅뱅 / 붉은노을	언터처블 / Tell me why
18	태인 / 사랑을 해도 외롭다	린 / 매력쟁이	빅뱅 / Stylish (The FILA)	나몰라패밀리 / 붙잡아도
19	빅뱅 / 붉은노을	럼블피쉬 / 비와 당신	소녀시대 / 힘내!	비 / Rainism
20	언터처블 / Tell me why	이승철 / 듣고 있나요	샤이니 / Stand by me	손담비 / 미쳤어

4. 언론 동향

4-1. '꽃보다 남자'의 인기 음악차트에 까지

드라마의 인기가 음악차트에 까지 이어지는 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꽃보다 남자' OST의 인기는 주목할 만하다. 언론은 MBC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시청률이 지난 19일자 조사에서 25%에 육박한 가운데, 드라마 삽입곡도 각종 음악차트에서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20일 KTF 도시락에 따르면 주간랭킹(12~18일) 10위권에 '꽃보다 남자'의 OST 곡 3곡이 진입했는데 이들 곡은 주인공 김현중이 속한 남성그룹 SS501, 김준이 멤버인 남성그룹 티맥스 등이 노래했다. 한편, 이 차트에서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는 지난주에 비해 무려 29계단 뛰어 3위, 티맥스가 부른 '파라다이스'는 지난주에 비해 36계단 상승해 4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20일자 보도자료 인용)

더욱이 '꽃보다 남자'의 이러한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으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 21일 발매될 음반 주문량이 3만장에 달하는 등 오프라인 음반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도레미미디어의 이창학 상무는 연합뉴스의 20일자 보도를 통해 "21일 발매될 OST의 첫 주문 물량이 3만장에 달하며 계속해서 주문이 늘고 있다. 음반 시장이 불황인데다, 최근 OST로 성공한 사례가 드물어 이런 반응에 무척 흥분된다."고 밝혔다.

이렇듯 지난해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베토벤 바이러스', '맘마미아', '원스' 등 OST 음반들의 성공은 올해 초 '꽃보다 남자'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불황으로 더욱 어려운 음악시장에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박진영-배용준이 합작하여 드라마 제작에 뛰어드는 등 OST를 겨냥한 음악 산업과 방송 산업의 결합에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 드라마 뜨니 OST도 인기!... '꽃보다 남자' OST 대박 예감 [매일경제 2009-01-21]
- '꽃남' 인기로 O.S.T도 음악차트 장악 [연합뉴스 2009-01-20]
- '꽃남' OST, KTF도시락에서도 인기 '폭발' [아시아경제 2009-01-20]
- '꽃보다 남자' OST도 인기 급상승 [노컷뉴스 2009-01-20]

4-2. 국제음악산업연맹(IFPI) Digital Music Report 2009 출간

언론은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조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디지털음악 시장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실물 음반에서 디지털음반으로의 대체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음악시장 변화를 전망하는데 있어 다양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19일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세계 디지털음악 시장의 규모는 370억달러(약 50조3755억원)로 추산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25% 성장한 것이며 6년 연속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07년에 전체 음악 매출 중 디지털음원 비중은 15%였지만 지난해는 20%로 늘어났다. (전자신문 20일자 보도자료 인용)

이러한 결과는 예견된 사실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MP3플레이어와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폰, IPTV등 보다 다양한 매체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음악시장 전망은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 음악시장 변화의 가속화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음원의 95%는 불법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레코드 산업이 활발한 16개 국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400억 개가 넘는 디지털 음원이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전체 저작권 음원의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20일자 보도자료 인용)

이것은 온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에 따라 음악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점의 정립, 그리고 디지털 음원 불법 유통의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함께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작년 세계 디지털음악시장 50조원 돌파 [전자신문 2009-01-20]
 세계 디지털음악 판매, 전체 음악시장 20%로 성장 [ZDNet Korea 2009-01-20]
 전 세계 온라인 음원다운 "95%는 불법" [서울신문 2009-01-20]
 국제음반반산업연맹 사이트 <http://www.ifpi.org/> 2009-01-16

4-3. 주요 단신

○ 동방신기, '5연속'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1위

5인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가 일본 내 25번째 싱글로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통산 6번째 1위를 달성했다.

[관련기사]

동방신기, '5연속'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1위 [스타뉴스 2009-01-21]
 동방신기, 日 새 싱글 오리콘 차트 1위 [매일경제 2009-01-22]
 동방신기, 日 새 싱글 오리콘 1위 '통산 6번째 정상' [OSEN 2009-01-22]

○ 엠넷미디어, LGT와 음악 서비스 파트너 계약

엠넷미디어가 LG텔레콤과 음악 서비스 통합 운영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엠넷미디어, LGT와 음악 서비스 파트너 계약 [전자신문 2009-01-22 09:57]
 엠넷미디어, LG텔레콤과 음악서비스 통합운영 파트너 계약 [이투데이 2009-01-22]

○ 소녀시대-꽃남O.S.T '우리가 바로 2009 대세!'

뮤직포털 '엠넷'은 09년 1월 셋째 주 엠넷 차트에서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OST가 차트 내에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이번 주 1위 곡은 지난주에 이어 소녀시대 <Gee>가 차지했다.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뮤직비디오 등 전 분야 1위를 달성해 당분간 소녀시대의 독주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소녀시대-꽃남O.S.T '우리가 바로 2009 대세!' [조선일보 2009-01-20]

5. 행사 및 협회 소식 등

5-1. 벅스, 대학생 음악전문 기자단 모집

음악포털사이트 벅스(bugs.co.kr)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음악전문 기자단을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쥬크온과 통합하여 서비스 및 콘텐츠가 더욱 강화된 벅스는 기존 쥬크온에서 운영하던 '대학생 기자단'을 확대하여 벅스 기자단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벅스 기자단은 국내외 스타 인터뷰, 각종 콘서트, 공연, 쇼케이스 등을 직접 취재하며, 취재된 기사는 벅스 사이트에 콘텐츠로 게재되며 작성자는 기자단 본인 필명으로 등록된다.

오는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벅스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며, 벅스 기자단을 위한 전용 메뉴 개설 등 벅스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벅스기자단 응모는 대학생(휴학생포함)만 참여할 수 있으며 2월 6일까지 벅스 사이트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벅스 공식 홈페이지 <http://music.bugs.co.kr/event/bugsevent/view?gc=7030>

5-2.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 업무 시행 공고

■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 업무 시행

- 200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음악저작물 이용촉진계약」업무가 2009년 2월 1일부터 「음악저작물 조건부 양도계약」업무로 변경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과 음악출판사와의 계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 업무 이용 안내

1. 개요

2003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음악저작물 이용촉진계약」업무를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 업무로 변경 시행한다.

협회에 신탁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음악출판사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프로모팅 (Promoting=관리·이용촉진·개발)을 해줄 것을 목적으로, 협회 회원이 음악출판사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해 계약기간동안 조건부 양도를 하고, 양도를 받은 음악출판사는 협회에 해당 음악저작물을 재 신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임. 해당 저작물에 대한 관리·이용 촉진·개발을 원하는 회원은 음악출판사와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에 대하여 상호 협의한 후, 회원은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 승인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로부터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음악출판사와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임.

2. 절차 (조건부 양도 승인신청서(회원)→승인서(협회)→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 체결)

준비서류

■회원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승인신청서+ 저작물목록+신분증사본(서류 간에 間印을 반드시 해야 함)

■출판사

회원과 맺은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서(협회 표준계약서 사용) 사본

- 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음악저작물 관리·이용촉진·개발”을 원하는 회원은 음악출판사와 음악저작물 관리·이용촉진·개발에 관한 협의를 한 후, 협회에서 정한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승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음악저작물 목록,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② 이때 회원은 “승인신청서”에 계약기간과 분배율, 양도 지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승인신청서 제출 후, 협회로부터 승인서를 발급 받으면 음악출판사와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 계약서(협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악출판사는 작성한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 14일 내로 협회에 제출한다.
- ④ 접수한 계약서는 결재를 필한 후 지분 설정 등록 등 협회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 ⑤ 저작권자가 협회 비회원인 경우는 현재와 동일하게 비회원과 출판사간에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이때의 양도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함), 협회에 계약서 사본 및 저작물 목록, 작품신고서를 제출한다.

3. 시행시기 : 2009.2.1.부터 시행

4. 기타사항 : 음악저작권 조건부양도계약 시행 전, 회원과 음악출판사간에 맺은 국외 지역 양도계약서는 2009.2.1 ~ 4.30(3개월)까지 자료1팀으로 제출한 계약서만 유효하게 처리된다.

[관련사이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Ⅲ. 해외 동향

1. 해외 음악산업 동향

1-1. YouTube의 UCC 음악 소리차단, 이용자들 분노

음악 저작권 소유자와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튜브는 1월 14일,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더욱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로 수백 개의 비디오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소리가 차단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2월 유튜브에서 워너뮤직 그룹의 음악을 담고 있는 비디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라는 워너뮤직 그룹의 요청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요청은 라이선싱 협상이 결실을 보지 못한 이후 뒤따른 것이다.

비디오를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허가된 음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책에 분노하여 음악 업계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Inside Digital Media의 선임 분석가 Phil Leigh는 유튜브의 움직임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는 저작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할 근거가 없으며 유튜브와 같은 사이트들은 저작권의 명예를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의 조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YouTube Mutes Copyrighted Music, Angers Users, [toptechnews.com 2009-01-15]

1-2. 음악 산업의 새로운 시장 - 휴대폰 관련 시장 확대

○ 휴대폰 시장에서도 무료 음원에 대해 기대

AFP(Agence France-Presse)는 최근 '새 음악 서비스가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열광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했다. 이 기사는 Apple의 iPhone이 iTunes와 통합되었고, 후발 주자인 Nokia의 "Comes With Music"(이하, CWM)과도 통합하여 모바일 음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징조는 Nokia, Blackberry, Sony Ericsson 등을 포함한 주요 휴대전화 기기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Nokia가 현재 보유한 CWM 서비스는 400만 개의 트랙을 무제한 사용하고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고, Blackberry의 새 응용 프로그램은 음악과 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Midem에서 발표되었다. 한편 Sony Ericsson의 PlayNow music 서비스는 불법 다운로드와의 투쟁을 지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약간의 요금을 내고 휴대 전화에 무제한 다운로드를 가능

하게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디지털 음원 판매의 90%가 휴대 전화 다운로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나 미국에서 MEF(Mobile Entertainment Forum)가 2008년에 250억 달러의 디지털 음원으로 판매 되었고, 그 절반이 휴대전화를 통해 판매되었다고 추정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음악 시장인 휴대전화 시장은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기사]

Cellphone users to soon expect free music as part of service, TG Daily , 2009-01-20

○ Microsoft, 모바일 음악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

Microsoft가 1월 21일, MSN Mobile을 통해 새롭게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음악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서비스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수 천 명의 아티스트들이 만든 비디오와 음악 트랙을 구입하고 그것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 받을 수 있게 한다.

영국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Sony Music과 Warner Music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음반 회사들이 제공하는 Franz Ferdinand, Britney Spears, Pink 등의 음악 트랙 100만개 이상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2만 5천 여 개의 음반 순위표와 1만 여 개의 뮤직비디오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Apple의 iTunes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은 정식 트랙들을 1.5파운드, 음악 순위표는 3파운드, 뮤직비디오는 2파운드에 판매한다.

요금제는 사용자의 월 요금에 합산되는 후불제이다. 하지만 원한다면 선불제로 정할 수 도 있다.

MSN Mobile UK의 이사인 Hugh Griffiths는 Window Mobile 기기에 구매받지 않은 130개가 넘는 휴대 전화기를 통해 Microsoft사의 음원 판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Microsoft launches mobile music service, Brand Republic, 2009-01-21

1-3. 맨섬, ISP가 무제한 음원 다운로드를 제공

맨섬(Isle of Man) 정부가 섬의 거주자들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한번 요금을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음원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는 이 섬은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고 대신에 그들이 법적 책임 없이 음원을 공유하고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ISP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보상을 음악 산업계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 제안은 칸(Cannes)에서 개최된 Midem 국제 음악 회의에서 발표되었고, 즉시 BPI(British Phonographic Industry)의 승인을 얻었다.

여기에 대해 BPI의 Geoff Taylor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러한 경우는 아직까지는 희귀한 경우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에서의 영향력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ISP의 blanket licence(포괄적인 사용허가)는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비영리적 사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금은 ISP 혹은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가 다달이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Manx ISP offers unlimited music downloads, PC Advisor,UK, 2009-01-21

1-4. 프랑스 칸에서 Midem음악 박람회 개최

MIDEM(Marché International du Disque et de l'Edition Musicale)은 1967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음악 산업 박람회로, 매년 프랑스의 칸(Cannes)에서 개최된다. 각국의 뮤지션들과 음악 산업 관련 기업가들, 문화 정책 입안자 및 저널리스트들이 참가한다. MIDEM에서는 음악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 정치와 법적 이슈들,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쇼케이스, 음악 트렌드와 음악관련 상품들에 대한 포럼이 진행된다. 올해는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 불법 음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 이제는 인정할 시기

음반 업계가 결국 파일 공유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 칸에서 열린 Midem회의에서 인정했다. 국제 음반 산업 협회인 IFPI는 95%의 디지털 음원이 인증되지 않은 출처를 통해 나왔다고 추산했다. 그리고 이것은 2008년에 비해 7% 가량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Midem을 지배했던 주요 주제는 파일공유를 그만 두었을 때 하락하는 판매고에 따라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였다.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파일 공유와의 싸움은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따라서 인터넷 공유를 인정하고 불법 공유에서 합법 공유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음반 업계는 ISP를 통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으며, ISP나 휴대용 음악 재생기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광고, 후원 및 보조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주 개최 된 Midem회의에 대한 기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음반 업계의 논란거리였던

인터넷 음원 공유 문제가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소득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해외 동향에서 이야기 되었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렇듯 공식적으로 그들의 입장이 밝혀졌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그동안 불법 음원 공유와 싸움을 벌였던 음반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자신들의 이익을 만드는데 활용할 것인지 주목해 볼 만하다.

[관련기사]

Music industry scrambles for cash, BBC News, 2009-01-19

Music industry urged to embrace, the Internet,guardian.co.uk, UK, 2009-01-19

○ 박진영, MIDEM 기조연설 성공적으로 마쳐

박진영은 18~21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미뎀(Midem)이 특정 주제를 선정해 여는 공식 회의인 '미뎀 넷(Midem Net)'에 구글 부사장, 마이 스페이스 수석 부사장, 노키아 전무이사 등과 함께 연설자로 선정된 바 있었다.

박진영은 이날 데이비드 은 구글 부사장과 코트니 홀트 마이스페이스 대표 등과 함께 기조 연설에 나서 비와 원더걸스 등 스타를 키워낸 노하우와 그것을 국제화 시키는 비결을 공개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세계 음악관계자 800여명 앞에서 박진영은 15분여간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소속 연예인들의 미국과 유럽진출에 대한 청사진도 밝혀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진영은 기조연설 후 "한류를 주도 하고 있는 한국 음악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세계 음악 산업과 인터넷서널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였다.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여 미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JYP엔터테인먼트의 스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소개하게 돼 영광이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Forget CDs, it's people powering music in Asia, says JY Park" AFP. 2009-01-18

"박진영, 프랑스 칸서 韓음악시스템 소개" 연합뉴스 2009-01-18

"박진영, 칸 국제음악 컨퍼런스 기조연설 성공적 " 일간스포츠 2009-01-18

1-4. 주요단신

Apple의 App Store가 5억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다

Apple은 자사의 iPhone과 iPod touch에서 사용 가능한 온라인 소매 프로그램이 현재 1만 5천개의 다운로드 가능한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들이 5억 건의 다운로드를 했다고 지난 16일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과 USA Today에 발표했다.

[관련기사]

Apple: App Store tops half-a-billion downloads, NetworkWorld.com, 2009-01-16

Sony Music Entertainment가 Universal Music과 협정을 맺다

Sony Music Entertainment는 Universal Music Publishing Group과 PlayNow Uncut(보통 M-Buzz라고 알려져 있음)에 관해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Sony Ericsson의 마케팅과 판매경로를 통해 신곡을 알릴 수 있는 기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Sony Ericsson의 음악 서비스인 Play Now arena와 Play Now Plus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Sony Ericsson's PlayNow Uncut partners with Universal Music, Into Mobile, CA, 2009-01-21

대부분의 온라인 음원이 불법이라고 밝혀져

ISP들이 불법 음원 공유를 중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5%의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는 완전한 불법이라고 IFPI(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가 밝혔다.

[관련기사]

Most Online Music is Illegal, Study Says, PC World, 2009-01-17

2. 한류관련 음악산업 현황

2-1. '한류스타' 뮤지컬 진출활동 활발

일본·중국 등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한류 스타들의 뮤지컬 무대로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스타들이 출연한 뮤지컬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한류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광진문화회관에서 공연중인 뮤지컬 '그리스'에는 일본서 인기가 높은 그룹 SS501의 박정민(대니 역)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아줌마팬들이 회당 4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박정민은 일본팬들을 의식해 간혹 무대 위에서 일본어로 애드립을 구사하기도 한다. 박정민의 소속사인 DSP엔터테인먼트는 뮤지컬에 대한 일본인 팬들의 문의자 줄을 잇자 비행기 티켓과 숙소·뮤지컬 티켓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 팬들의 문의가 많아 여행사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면서 "공연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600여명 이상의 일본인 관람객들이 더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혜성·강타 등과 활동하며 일본서 인기를 얻은 이지훈의 뮤지컬 '햄릿'에도 일본인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연장인 서울 숙명아트센터에는 한번에 200여명씩 일본인 관광객이 방문했다.

신화의 앤디는 뮤지컬 여행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다. 지난해 뮤지컬 '뮤직 인 마이하트' 공연 당시, 뮤지컬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한국을 찾은 중화권팬 300여명을 위해 한 회 특별 공연을 하기도 했다.

앤디가 출연한 뮤지컬은 당시 서울시관광마케팅본부의 한류콘텐츠로 지정돼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 이후에도 앤디가 출연한 뮤지컬 '폴라로이드'와 '싱글즈'에는 회당 최소 50명 이상의 일본·중국·대만 팬들이 끊이지 않고 공연을 관람했다.

이같은 '뮤지컬 한류' 붐에 대해서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폴라로이드'를 제작했던 PMC측은 "이전까지 해외 관람객들은 대부분 무언어극을 선호했지만 한류스타들의 영향으로 한국어 발성 뮤지컬에도 외국인 관람객의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해외시장에 우리 뮤지컬을 알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람객을 확보할 수 있어 환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SS501, '트리플크라운' 달성 [한국일보 2009.01.22 (목) 오전 7:12]
 SS501, 2009년 목직한 행보 예고! [스포츠칸 2009.01.21 (수) 오후 7:25]
 '한류스타' 뮤지컬 진출 ...뮤지컬도 한류바람 [중앙일보 2009.1.22 이경란 기자]

2-2. 아시아송 페스티벌, 세계 각국서 방영

아시아 대표 음악 페스티벌로 자리잡은 '아시아송 페스티벌'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5차례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마련해온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은 19일 "매년 아시아 15개국의 TV채널을 통해 녹화 방영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 상암동에서 개최된 제5회 행사의 녹화 장면은 아시아를 넘어 북미, 북유럽,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도 소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추산하고 있는 기방영 및 방영 예정 국가는 총 30개국에 이른다. 이미 중국 CCTV, 홍콩 TVB, 대만 아지오TV-GTV, 태국 채널7, 몽고 UBS 등의 아시아 국가 주요 지상파 방송들이 특별 방송 형태로 내보낸 데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2~3월 편성을 확정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 케이블 방송사로 방영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상파 후지TV를 통해 2월 방영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이밖에도 중앙아시아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마르카지TV는 지난 12월31일 연말 특집으로 이 장면을 내보냈으며, 카자흐스탄 알마TV, 아프가니스탄 누르TV도 2월 편성을 확정지었다. 또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 북유럽의 핀란드를 비롯해 아프리카 탄자니아,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태평양 피지도 각각 2월에 '아시아송 페스티벌' 방송 전량을 자국민들에게 방영키로 했다.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은 아시아 전역을 휩쓸고 있는 한류의 기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로 5회째 아시아송 페스티벌을 개최해왔다. 1회 축제를 알리는 공문이 아시아 각국에 발송되자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각국의 톱스타들이 열띤 호응을 드러냈으며, 특히 각국의 매체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청됐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아시아송 페스티벌에 참가한 가수는 한류 가수 외에 하마사키 아유미, 코다 쿠미,

아라시, 원즈, 여명, 진혜림, F4, 비룡해, 막문위 등 아시아 자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스타들이었다.

[관련기사]

2008 아시아송페스티벌' 30개국 방송 [세계일보 | 2009.01.21 (수) 오후 9:33]
 아시아송페스티벌, '아시아 대표적 음악행사로 거듭날 터' [아시아투데이 | 2009.01.19 (월) 오후 4:10]
 아시아송페스티벌, 세계 30여개국 방영 [연합뉴스 | 2009.01.19 (월) 오후 3:25]

2-3. 한국가수들 도쿄에서 '케이팝 슈퍼라이브' 개최

한국 가수들이 일본 한복판에서 '한류의 불씨'를 되살린다.

전진, 슈퍼주니어, sg워너비, 테이, 휘성 신혜성 등 가수 6팀은 31일 일본 도쿄 국제포럼 A 홀에서 합동 공연 <케이팝 슈퍼 라이브>를 연다.

이번 공연은 일본 및 아시아 등지에서 특정 한국 가수에 편중된 한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획됐다. 다양한 한국 가수들을 일본에 소개해 궁극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어지고 있다.

<케이팝 슈퍼 라이브>는 2006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시작됐다. 2007년 사이타마에 이어 올해는 도쿄 국제포럼에서 세 번째로 열린다.

<케이팝 슈퍼 라이브>를 주관하는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측은 "한류 분위기에 편승해 반짝 이벤트에 그칠 거라는 우려와 달리, 이전의 오사카와 사이타마의 두 공연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다. 세 번째 여는 공연인 만큼 <케이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팬들과 언론들의 기대가 뜨겁다"고 밝혔다. <케이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일본 공연기획사 K-웨이브가 주최하고 한국의 '젊은제작자연대'와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관한다.

[관련기사]

신혜성 전진 등 6팀, '케이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동아일보 2009-01-19
 '케이팝 슈퍼라이브' 한류불씨 되살린다, 한국일보 2009-01-22

※ "음악산업 주간브리프"는 게이트웨이 위콘(www.wecon.kr)의 '업계는 지금' - '산업동향'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음악산업팀
 팀장 이동주 (Tel. (02)2016-4010)
 과장 김도윤 (Tel. (02)2016-4091)